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나’와 마주하는 고독으로의 초대

이 무겁고 어두운 감정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철학자가 한나 아렌트(1906~1975)다. 아렌트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철학자이며 테러와 야스퍼스에게서 공부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교수 자격 취득을 금지당했다. 이후 아렌트는 나치의 반유대인 정책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1959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여성으로서 최초로 전임 교수직에 임명되었다. 아렌트의 철학에는 나치독일의 반유대주의 폭력적 역사와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이 켜켜이 녹아 있다.

아렌트는 우리가 ‘혼자’일 때 갖는 감정을 세 가지로 나눈다. 우선 고립감이다. 고립은 세상의 질서와 공적 영역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개인이 공적 존재로서 철저히 배제된 상황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렌트는 “고립은 테러의 가장 비옥한 토양이며 고립은 그 자체가 전체주의의 예비단계이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는 고립된 사람들이 드러내는 잘못된 충성심의 결과로 퍼져 나가는 재앙이다.

반면에 외로움은 소통과 공감의 부재로 인한 감정이다.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은 물론이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라고 느낀다. 더 나아가 외로움은 타인은 물론 내면의 ‘나’마저 대화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자기부정의 감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로움은 외적 고립과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대화의 불가능 상태와 연결된다.

아렌트가 말하는 나와 또 다른 나의 객관적 분리의 어려움으로 스스로가 ‘나’의 동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자아 상실의 토대 위에서 더 깊어지는 외로움은, 불합리하고 설명되지 않은 현실에 직면할 때 외면과 도피 쪽으로 쏠리기 쉽다.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에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타인들의 판단에 휩쓸려서 소통이라고 믿으며 외로움을 떨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혼자 있는 상태는 고독이다. 아렌트가 말하는 고독은 외로움과 여떻게 다른가? 고독은 혼자이기를 스스로에게 요청하며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사유하는 실존적 삶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혼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고독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고독은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과 질문하고 대답함으로써, 한 개인이 삶의 주체로서 자기기만과 허상을 내려놓는 시간과 공간

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독은 자아 부정을 극복하며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는 최선이라고 아렌트는 말한다.

즉 고독은 외로움이 두려워서 밖으로 향함으로써 왜곡되고 굴절되었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고 자신에게 회귀함으로써, 공동체 관계에서도 자신을 주체로서 정립하는 과정이다.

외로움은 스스로의 사유를 회피하고, 고독은 ‘나’를 타인들의 모습으로 대체하기를 거부하는 주체적 사유의 길이다. 그래서 아렌트는 외로움이 성장적 고독으로 변화되지 못할 때 전체주의가 뿌리를 내린다고 보았다. 이 전체주의는 비단 정치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을 잠식한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고 있다. 당분간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따른 단절감과 외로움 또한 없앨 수 없지만, 그러나 즉각적인 외로움에 매몰되지 않고 나 자신을 고독으로 초대할 수 있다. 외로움과 그리 멀지 않은 고독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나’는 항상 나와의 대화를 기다린다.

社說

‘박지원 국정원장’ 남북관계 개선 기대된다

지난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라인을 교체하면서 박지원 전 민생당 국회의원을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발탁한 것이다. 박 국정원장 내정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진도 출신으로 오랜 동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박 전 의원은 과거 ‘반문’(반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했다. 2015년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후 국민 의당에 합류해 문 대통령 비판의 최전선에 선 이력이 그것이다. 특히 2017년 대선 때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매일 아침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비판해 ‘문모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문 대통령에 대해 연일 극찬해 ‘문생큐’로 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들어 당시 문 대통령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엔 대북송금 특급으로 육살이를 하기도 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 관계인 민생당 소속으로 목포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 정부와의 이런저런 악연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박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발탁한 것은 야당 출신을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협치와 화합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과거사보다는 국정과 미래를 생각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후 처음 만나 성사시킨 6·15 정상회담과 6·15 선언의 막후 주역이었다.

문 대통령도 아마 그의 남북 관계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높이 샀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 박 국정원장 내정자는 현재 배배 꼬여만 가는 한반도 상황에서 경제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 관계를 푸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하는 법·제도 정비해야

광주·전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 산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이웃이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 노동 착취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가 최근 광주 지역 이주노동자 3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만 해도 그렇다.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이들이 201명으로 전체의 54.4%나 됐다. 가해자는 한국인 사업장 동료(35.3%), 사업주(17.9%), 사업주가족(10%) 등이었다. 또한 전체의 56.6%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하기 힘든 구조다. 오히려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모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림·양식·축산·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과 휴

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가 대표적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성폭행·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등을 제외하면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도록 한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 등도 한국인 사업주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견해다.

자신이 일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입국 전에 이뤄지는 근로 계약과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강제로 출국해야 하는 규정 등도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온갖 고된일을 떠맡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 법과 제도의 차별적인 요소들을 세밀히 살펴 개선하고, 관련 법을 어긴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 ‘유행’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코로나는 그 이름만큼이나 기세가 등등하다. 국제 연구진은 최근 변종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최대 여섯 배나 빨라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7월 1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1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사망자 또한 50만 명을 넘었다.

K방역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했던 우리나라도 어느새 2차 팬데믹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료하는 데 매진했다. 이들이 배운 의술은 의로운 ‘광주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늘의 광주를 잊게 한 근간이 되었다.

불교 또한 호국의 성격을 지닌 종교다. 스님들은 외세의 침략 때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특히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에는 수많은 스님들이 의병으로 참전했다. 이중 73세 노구를 이끌고 팔도선교도 총선으로 승군을 지휘했던 대흥사 서산대사의 활약은 국난 극복의 견인차였다는 평가다. 고려 때의 팔만대장경도 몽골제

종교와 거리두기

대전·광주 등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

보다 청정 지역이라 자부했던 광주에서의 집단 감염은 사찰·교회 등 종교시설 등과 관련이 있어 추가 감염 우려가 높다. 종교는 세상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역할을 해 왔다. 구한말 광주 양림동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복음과 함께 의료와 봉사 그리고 교육에 헌신했다. 그 가운데 의료 선교는 죽어가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윌슨·오웬·서서평·포사이드 등의 선교사들은 한센인을 비롯한 병자를 치

국에 맞서 불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작금에 종교가 세상을 격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 지역이라 자부했던 광주에서의 집단 감염은 사찰·교회 등 종교시설 등과 관련이 있어 추가 감염 우려가 높다. 종교는 세상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역할을 해 왔다. 구한말 광주 양림동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복음과 함께 의료와 봉사 그리고 교육에 헌신했다. 그 가운데 의료 선교는 죽어가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윌슨·오웬·서서평·포사이드 등의 선교사들은 한센인을 비롯한 병자를 치

/박성선 문화부 부장 skypark@

2040 광주 도시계획 이렇게

광주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과 공간 구조 개편



류영국
지오시티(주)대표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와 시비, 그리고 민간 투자비를 합쳐 1조 원대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식 서비스산업의 거점 공간인 ‘스테이션G’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와 AR/VR 기술을 응용한 콘텐츠 창작제작지원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그동안 KTX 광주역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광주역이 활로를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광주역과 상무역, 백운역은 도시철도 환승역으로 동서선인 1호선과 순환선인 2호선, 지선이 만나는 중요 역이다. 농성역은 1순환도로와 연계되고, 시외버스 터미널주변에 형성된 병원들과 상가에 접해 있다는 강점으로 최근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이용객이 가장 많은 문화전당역은 누가 뭐라 해도 5·18민주광장, 전일빌딩과 함께 광주의 상징 공간으로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을 곳이라고 했다.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2014)에서는 역세권 대상으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1일 1만 명이 넘는 남광주역(2만 6326명), 상무역(1만 5899명), 백운광장역(1만 5038명)을 선정 검토하였다. 3개의 역은 모두 상업 지역에 위치하며 지하철도·지하철, 지하철도+버스 2개 교통수단이 환승되는 역이다. 역세권과 관련된 도시개발 이므로 ‘대중교통지

향형 도시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이 있다.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과 연계한 복합적인 토지 이용으로 보행 친화적인 교통 체계를 염두에 둔 이론이다. 상업과 업무, 주거와 여가 등 기능을 고밀 복합화하고 대중교통역을 중심으로 개인 승용차 교통을 억제하여 보행자 위주의 교통 시설을 건설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성과 정시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와 녹색 교통인 보행의 통합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건강도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TOD이론으로 도시가 개발되고, 재편되어나가게 되면 역간 평균 거리인 1.5~2km간격으로 도시철도 노선을 따라 염주나 목욕과 같이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고 하여, 로사리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즉, 도시철도가 장기적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는 이론이다. 광주의 도시 공간 구조는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1984년에는 1도심에서 시작하였다.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존 도심과 상무 신도심을 도심으로 하는 2도심, 송정역과 첨단, 백운을 부도심으로 하는 3부도심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광천, 금호, 용봉, 하남, 수안, 효천, 소태 등 7개 지역 중심과 광주역, 송암, 대촌 등 3곳을 우편물 안내가 만드는 선형대야 한다.

그러다면 모든 사람들이 비대면 금융의 혜택을 잘 받고 있을까?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사골에도 점포가 많다 보니 예전부터 어르신들은 업무 개시 시간이 한참이나 남았음에도 새

관천, 용봉 지역 중심과 대촌 특화 핵 정 도로 동서선과 순환선으로만 도시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서비스 계획의 한계로 보여진다. 지하철 서비스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서서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악화되고 집객 기능이 저하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공간 구조는 도시철도 역세권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30만 내외의 대생활권과 상업, 업무, 위락, 교육, 문화, 체육, 복지 서비스 등이 공간 구조와 정합되고, 역세권과 연계되고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녹색 교통을 주축으로 하는 아름답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하 공간에서 상부의 건축 공간으로 보행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결 도로와 지하 광장 조성 등을 통하여 지하철 공간과 주변 건축물이 통합된 건축 공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개발 수용자 교통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찾아가야 한다.

아울러 역세권 단위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파편화된 주변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간을 통합하여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지하철로의 보행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보행로와 녹지 공간을 배치, 옥외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 공간 창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고

비대면 사회의 금융과 ‘언택트 디바이드’



이수정
농협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 과장

또한 2019년 인터넷 뱅킹을 통한 일 평균 조회, 자금 이체, 대출 신청 서비스 이용 건수는 1억 5600만 건이며 금액은 4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7%, 2.7% 증가했다. 모바일 뱅킹은 이용 건수 9700만, 금액 6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3%, 19.6% 증가했다. 전체 인터넷 뱅킹 이용 실적 중 모바일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는 61.9%, 금액으로는 13.1%에 달한다.

은행의 전달 채널별 업무 처리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18개 국내 은행 및 우체국 예금 기준으로 금융 서비스 전달 채널을 창구,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텔레뱅킹 및 모바일 뱅킹을 포함한 인터넷 뱅킹으로 구분했을 때 2019년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입출금·자금 이체 서비스 이용 비중은 59.3%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42.1% 대비 17.2%나 성장한 것이다. 또한 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를 보면 이용 비중이 90.3%를 기록해 2016년 80.6% 대비 9.7%나 성장했다.

즉 대부분의 금융 조회와 이체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그 비중과 규모는 갈수록 확대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비대면 금융 서비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인 IT 강국인지 알 수 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을 봐도 그렇다. 일본은 인구 중 16% 정도만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주민 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카드와 PIN번호를 갖고 있어 우편물 안내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지원되면서 아직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며 자국의 낙후된 행정 정책과 시스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국민들은 지원 2주 만에 90%를 수령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사골에도 점포가 많다 보니 예전부터 어르신들은 업무 개시 시간이 한참이나 남았음에도 새

벽법을 드시고 오셔서 기다리다 모든 업무를 직접 창구에서 처리하고 간다. 지금이야 창구에 오시는 어르신 수도 적어지고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지만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 자체를 소유하지 않고 있고, 있어도 활용을 거의 못하는 실정이다.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 등 금융 회사들 노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받는 언택트 디바이드(Untact divide), 즉 비대면 소외자가 될 수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활용 가능한 장비의 지원, 적절한 교육 등의 정책 시행과 세심한 서비스를 통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의 글로벌 리더가 될 대한민국에서 남녀노소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주인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진 우리 민족의 정신이며 상호 금융의 정신인 ‘더불어 다 함께’의 마음가짐 아닐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